

# 세계 에이즈의 날 행사를 즈음하여 전 세계에서는...

세계 에이즈의 날을 즈음하여 세계보건기구는 올해의 에이즈 관련 발표를 하였다. 그에 따르면, 아프리카 8개국에서 젊은이의 HIV 감염률이 저하되었다는 소식도 있지만, 생존 감염인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3천 9백 5십만 명으로 늘어났고, 2006년도에만 약 430만 명이 새로이 감염되었다고 하였다. 이제껏 에이즈 예방에 성공적인 나라로 여겨왔던 우간다와 태국에서 신규 감염률이 증가했다는 안타까운 전례지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대부분의 정부가 에이즈에 대해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대한 의지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올해의 에이즈의 날 슬로건은 작년과 같은 "STOP AIDS, Keep the promise" 이다.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행사가 열렸고 아프리카, 미국, 영국 수상 등이 연설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하였다.

글 신수린 前 본회 사업부장

세계노동기구(ILO)는 각 식장에서 축제, 거리연극, 영화상영과 종교적인 집회 등을 열고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켰다. 우간다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 연합 HIV/AIDS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베이루트, 레바논, 이디오피아 등에서도 유엔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제네바에서는 "HIV/AIDS and work: global estimates, impacts on children and youth, and response 2006(에이즈와 직장: 에이즈 추정치, 어린이와 젊은이에게 미치는 영향과 2006년의 대응)"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처음으로 사망률에 대한 미래 추정치의 감소와 노동력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될 것과 노동자에게 향후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접근성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HIV/AIDS 관련 만화 전시회가 국제인구보건협회, 유엔에이즈와 세계노동기구 공동주관으로 세계 최초로 에이즈의 날 행사기간 동안에 유럽에서 선보였다.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에이즈와의 전쟁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는 성명을 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에이즈 약제 공급과 에이즈 전파예방을 위한 성적 행위의 절제에 대해 구체적

으로 언급하였다. 남아프리카가 발표한 새로운 에이즈 예방 국가전략은 14-17세의 사춘기 소년소녀들의 "성적 첫경험을 늦추자(delay the initiation of sex)"이다.

젊은이 대상의 음악방송인 MTV는 매년 세계에이즈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 생중계를 방영한다. 올해의 MTV와의 인터뷰에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은 종교 단체의 콘돔사용 금지에 대하여 "모든 종교단체가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는데 MTV에서 영국 수상을 섭외, TV에 직접 출연하여 에이즈 예방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앞으로 에이즈 예방에 대한 정책방향을 동성애자 대상의 사업으로 잡고 힘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현재 중국 내 동성애자 약 5명 중 1명만이 콘돔을 사용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예방홍보정책이 중국의 에이즈 조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콘돔사용을 촉구하는 홍보를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인도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약 570만 명의 감염인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병이 많이 진행된 에이즈 환자들에게 항바이러스 약제를 우선적으로 저

렴한가격에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방콕에서는 안전한 성에 대한 홍보로 몸피니 공원에서 나트 던져 콘돔 터뜨리기, 달려가서 콘돔 터뜨리기, 마네킹을 이용한 여성 콘돔사용방법 시연 등의 행사를 벌였다. 방글라데시에서는 HIV/AIDS 감염인들이 국회 밖에서 집회를 벌였다.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은 이날 “지난 5년 동안 뉴욕의 에이즈 발생률은 약 3분의 1로,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5분의 1로 줄었다”고 발표하였다.

올해의 에이즈의 날 주제는 “책임(accountability)”으로 정해졌는데, 유엔사무총장인 코피 아난은 “책임(accountability)은... 모든 대통령과 수상, 정치가들이 결심하고 ‘에이즈는 여기서 멈추어야 한다(AIDS stops with me)’는 의지로 행동해야 한다.”고 연설하였고, 특히 책임감은 모든 사람들이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미주노동 신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검진시스템으로 에이즈사례를 조절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김정일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하여 HIV/AIDS 사례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유엔에이즈는 북한에 약 100건 이하의 HIV/AIDS 사례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얀마는 아시아에서 에이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나라로, 민주당은 HIV 감염인에게 연회를 열고 군부독재가 감염인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날을 기해 한 달 동안 성매매 여성과 그들의 고객에게 약 1백만 개의 콘돔을 배포하는 행사를 교육자들과 보건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

에이즈 예방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은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이들이 삶에 대한 의지를 키우고 각자가 예방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으로, 그 대표적인 것이 포경수술(circumcision), 마이크로비사이드(microbicides)<sup>1)</sup>와 미세경제(microfinance)<sup>2)</sup> 등이다.

12월 14일자 뉴욕타임즈는 포경수술을 한 남자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절반 정도의 감염률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라 여러 단체들이 아프리카의 포경수술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아프리카의 우간다와 케냐에서 행해진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영국의 란셋(Lancet)은 남아프리카에서 미세경제 프로젝트가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을 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 배경은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들은 많은 경우 다른 성적파트너가 있으며, 콘돔사용을 요구했을 때 더 폭력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미세경제 프로젝트로 이 여성들에게 경제적인 능력을 주었을 때 폭력적인 남편들에게서 독립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한다. 마이크로비사이드는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남성과의 성관계에서 사용하여 여성 스스로 자신을 어느 정도는 보호하도록 디자인되고 개발된, 여성에게 힘을 실어주는 프로그램(empowerment)이다.



>>코펜하겐: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십자가에 못 박힌 임신한 심대 소녀의 상이 코펜하겐의 Lutheran Cathedral 성당밖에 세워졌다. Jens Galschoel씨는 높이 약 2.5미터의 이 조각상이 의미하는 것은 기독교 원칙주의자들의 기본적인 생각인 ‘하나님은 순결과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섹스만 허락한다’에 대한 항의라고 한다.



>>롬베이: 세계에이즈의 날을 맞아 에이즈 레드리본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인도 롬베이 노동자들.

1)Microbicides : 국소적으로 항생제를 발라 HIV를 비롯한 성병의 침투를 저지시키는 것을 일컫는다.

2)Microfinance : 가난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서비스에서 제외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적은 비용의 경제서비스 형태로 적은 비용의 대출이나 때로는 보험이나 은행업무 등을 포함한다.